

Case Report

猪苓湯으로 호전된 과민성 혈관염 의증 치험 1례

이주현¹, 조은희^{2,3}, 박지원², 박민철^{1,3*}

¹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²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교실, ³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A Case Report of Hypersensitivity Vasculitis with Petechiae Improved by Administration of Jeoryoung-tang

Ju-Hyun Lee¹, Eun-Heui Jo^{2,3}, Ji-Won Park², Min-Cheol Park^{1,3*}

¹Departmen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³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is to report a case of hypersensitivity vasculitis with petechiae improved by Jeoryoung-tang

Methods: Petechiae was observed in the upper and lower extremities of the patient. The patient also complained of cystitis symptoms such as dysuria and residual urine. Since there were no other accompanying symptoms such as abdominal pain, bleeding, or joint pain,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hypersensitivity vasculitis and Jeoryoung-tang was prescribed for about a month.

Results: After administering Jeoryoung-tang for about a month, petechiae improved from 8 to 2 points, and cystitis symptoms also improved from NRS 7 to 2 points.

Conclusions: Since it has been confirmed that Jeoryoung-tang was effective as the treatment of skin symptoms through this case, Jeoryoung-tang can be prescribed for patients with other type skin diseases.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is single case, continuous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Hypersensitivity Vasculitis, Cystitis, Jeoryoung-tang

서론

혈액이 피부로 유출되어 발생한 적색이나 자색 반점을 총칭하여 자반이라고 한다. 피하 출혈 중 크기 3 mm 이상인 것은 자반, 3 mm 미만인 것은 점상 출혈로 분류되나, 이 둘은 근본적으로 같은 병변이기에 용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자반의 발생 원인은 혈소판 장애, 혈관염 등 매우 다양

하며, 자극에 의해 색이 변하는 홍반과는 달리 반점이 생긴 부위를 압박해도 그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¹⁾.

한의학에서는 자반을 血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葡萄疫, 血風瘡 등이 피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성 자반증,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과민성 혈관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치료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²⁾. 김 등은³⁾ 알레르기성 자반증 환

• Received : 22 March 2022

• Revised : 13 May 2022

• Accepted : 23 May 2022

• Correspondence to : Min-Cheol Park

Departmen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Wonkwang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895 Muwang-ro, Iksan-si, Jeollabuk-do, 54538, Republic of Korea

Tel : +82-63-859-2821, Fax : +82-63-841-0033, E-mail : spinx11@wonkwang.ac.kr

자에게 犀角地黃湯加減을 처방한 후 관련 증상이 유의하게 호전되었다고 밝혔으며, 강 등⁴⁾ 또한 문헌 고찰 연구를 통해 犀角地黃湯, 加味歸脾湯과 같은 한방 치료가 자반증 및 혈관염 개선에 효과적임을 보고한 바 있다.

중국 고문헌인 傷寒論에 처음 등장한 전통 처방인 豬苓湯은 체액 대사 문제를 동반한 염증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⁵⁾. 豬苓湯은 小便不利를 동반한 염증성 비뇨기 질환 치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6,7)}, 이는 豬苓湯이 하초 부위 염증 조절과 체액 대사에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른 염증 질환과 豬苓湯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아직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점상 출혈을 동반한 과민성 혈관염의 증 환자 1례에게 豬苓湯을 투여한 후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 환자 정보

- (1) 환자 : 두○○, 여자, 30세
- (2) 초진 시 주소 :
 - ① 兩側 上下肢 紫斑
 - ② 排尿痛, 殘尿感
- (3) 발병일 : 2020년 05월 18일경
- (4) 과거력 : 別無
- (5) 가족력 : 別無
- (6) 현병력 :
 - ① 2020년 05월 18일경 양측 상하지 자반 발생 하였으나 별무 검사, 별무 처치
 - ② 2020년 05월 18일경 별무계기로 발생한 배뇨통, 잔뇨감 증상을 주소로 지역 산부인과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 상 방광염 진단 하 약물 치료(항생제, 소염제) 시행
- (7) 치료기간 : 2020년 05월 25일 - 2020년 06월 24일 (총 3회 내원)

(8) 계통적 문진

- ① 大便 : 3일에 1번 정도 시원하게 대변을 본다. 며칠 동안 변을 보지 못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 ② 小便 :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끼고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시원하지 않다.
- ③ 寒熱 : 손발이 차갑다. 신체 어딘가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 추웠다가 열이 났다가 할 때가 자주 있다.
- ④ 汗出 : 신체 일부에서만 땀이 난다. 땀을 내면 기분이 좋다.
- ⑤ 食慾 : 입맛이 없다. 최근 살이 조금 빠진 것 같다.
- ⑥ 消化 : 소화가 잘 된다.
- ⑦ 睡眠 : 잠을 잘 잔다.
- ⑧ 口渴 : 찬물을 좋아하고 조금씩 마신다. 하루 총 1.5ℓ 가량의 액체를 마신다.
- ⑨ 頭部 : 열이 머리 위로 오를 때가 자주 있다.
- ⑩ 手足 : 다리가 잘 붓는다.
- ⑪ 皮膚 : 여드름, 피부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2. 치료 방법 (Table 1, Fig. 1)

2020년 05월 25일 - 2020년 06월 24일(총 60척 30일) : 豬苓湯을 하루 2첩 기준으로 전탕하여, 120cc씩 1일 3회 식후 30분에 복용하도록 지도하였다.

3. 평가 방법 (Table 2; Table 3)

환자 내원 시마다 증상 문진과 병변 부위 사진 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 변화와 치료 경과를 파악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환자, 보호자에게 사진 및 진료기록의 학술적 이용에 대해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 (1) 피부 증상 평가 : 반점 범위, 색조, 동반된 자각증상을 Absence(0), Mild(1), Moderat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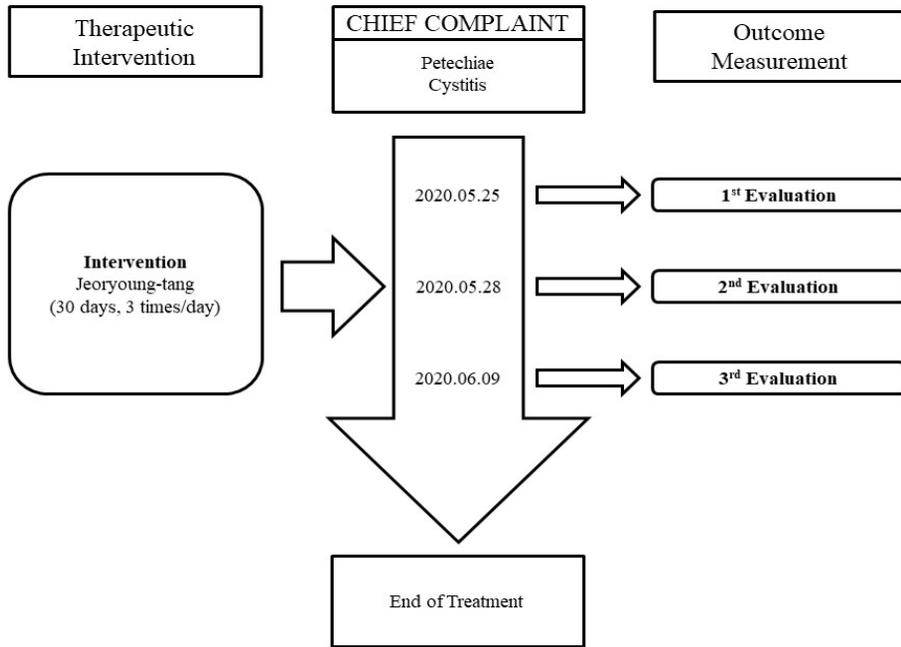


Fig. 1. Treatment Timeline

Severe(3)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 (2) 방광염 증상 평가 : Numeric Rating Scale (NRS) 척도를 사용해 환자의 자각 증상 호수를 0-10까지의 정수로 수치화하였다.

4. 치료 경과 (Table 4; Table 5; Fig. 2)

- (1) 2020.05.25 : 양측 상하지 주슬관절 이하에서 직경 1~2 mm 크기의 홍자색 반점이 다수 관

찰되었다. 환자 병변 부위에서 가벼운 열감이 발생한다고 호소하였으며, 양쪽 귀가 가렵고 뜨거우면서 단단한 느낌이 있다고 하였다. 환자 약 일주일 전 지역 산부인과에서 방광염을 진단받았으며, 내원 당시까지도 배뇨통, 잔뇨감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2) 2020.05.28 : 환자 지역 산부인과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Table 1. Prescription of Jeoryoung-tang

Name of Natural Medicine (Herbal Medicine)		Weight(g)
豬苓	<i>Polyporus umbellatus</i> FR.	6
白茯苓	<i>Wolfiporia extensa</i>	6
滑石	<i>Talc</i>	6
澤瀉	<i>Alisma canaliculatum</i> A.Braun & C.D.Bouché	6
阿膠	<i>Donkey Hide Gelatin</i>	6
Total Amount		30

Table 2. Petechiae Symptom Evaluation Index

Symptom Severity	
Extent	0=Absence
Darkness	1=Mild
Thermalgia	2=Moderate
	3=Severe

Table 3. Cystitis Symptom Evaluation Index

Symptom Severity	
Dysuria Residual Urine	0 (None) ~ 10 (Severe)

본원에 내원하였다. 검사지를 검토한 결과, 소변에서 미량의 단백질이 검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3) 2020.06.09 : 피부 증상이 대부분 호전되었으며, 귀 부위에서 느껴지던 자각 증상 역시 처음의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방광염으로 인한 배뇨 관련 불편감 또한 이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 (4) 2020.11.27 : 환자가 다른 증상의 치료를 위해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에게 지난 5개월간의 증상 변화에 대해 묻자, 상하지와 귀 부위 피부 증상은 호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광염 증상 또한 그동안 재발하지 않았음을 확인

해주었다. 환자 이제는 몸 상태가 많이 개선되어 피로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 찰

자반은 혈관 내 적혈구가 진피로 유출되어 발생하는 자색이나 적색 피부 반점을 총칭하는 용어로, 색이 진하고 경계가 뚜렷하며 물리적 압박에도 그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홍반과 구분된다. 자반은 대부분 혈소판이나 혈관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발병 기전에 따라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알레르기성 자반병, 과민성 혈관염 등으로 분류된다^{1,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은 혈소판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은 자가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이 혈구와 결합해 면역 복합체를 생성하고, 이로 인해 비장이나 간에서 혈소판의 파괴가 유발되며 발생한다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환자는 혈소판 감소로 인해 자반, 비출혈, 구강 출혈, 혈뇨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며, 망막 부위에 출혈이 발생할 경우 시력 저하와 같은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9,10)}.

알레르기성 자반병(Henoch-Schonlein 자반증)은 일종의 백혈구 파괴 혈관염으로, 백혈구 조직 산재,

Table 4. Symptom Evaluation Progress of Petechiae

	2020.05.25	2020.06.09	2020.11.27
Extent	3	1	0
Darkness	3	1	0
Thermalgia	2	0	0
Total	8	2	0

Table 5. Symptom Evaluation Progress of Cystitis

	2020.05.25	2020.06.09	2020.11.27
Dysuria	4	1	0
Residual Urine	3	1	0
Total	7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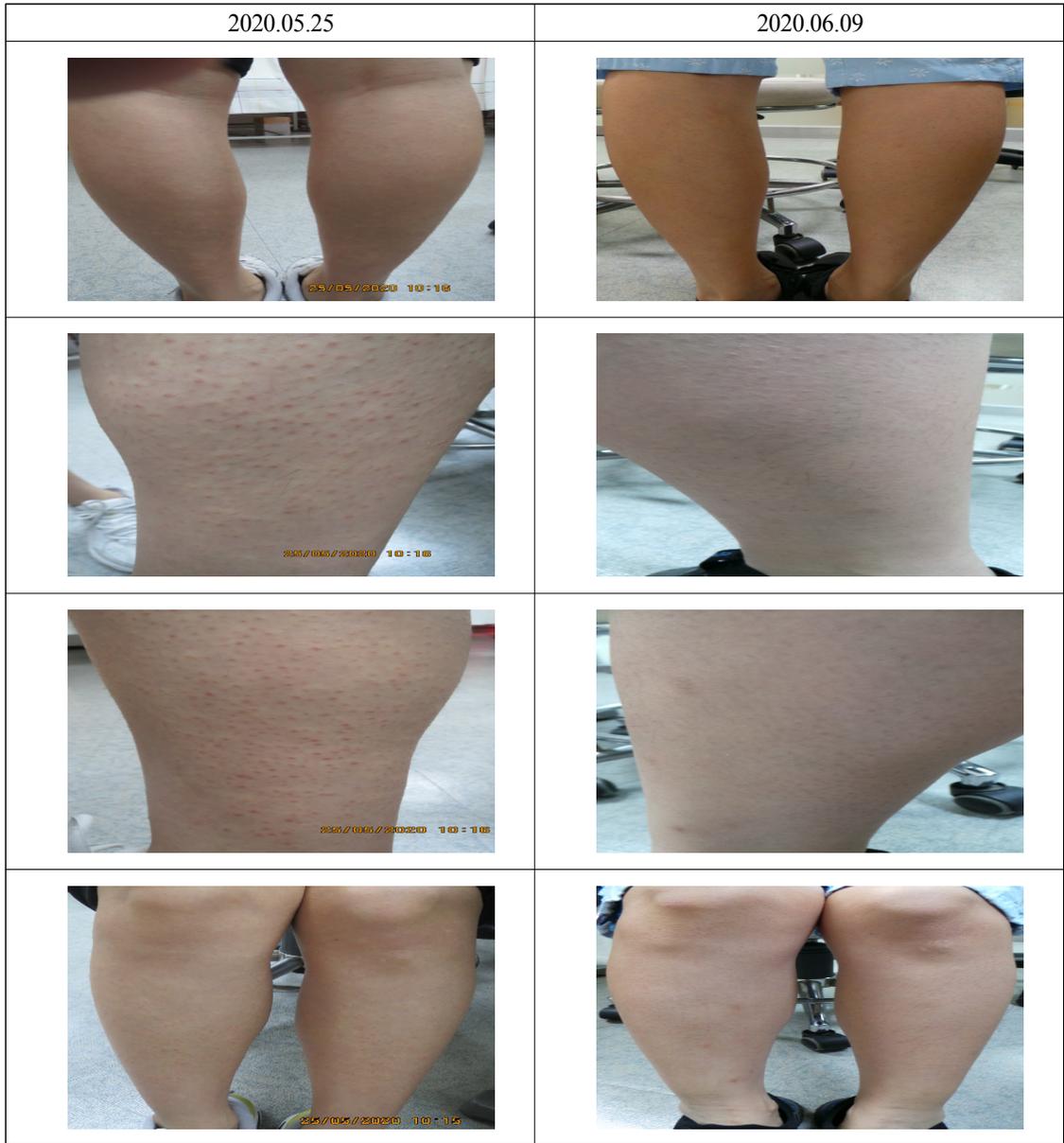


Fig. 2. Clinical Progress of Petechiae

혈관 주위 세포 침윤, 소혈관 괴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증상 발생에 앞서 바이러스 감염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반 증상 외에도 하지부 관절통, 복통,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알레르기성 자반병의 특징이다¹⁾. 일부 알레르기성 자반

병은 급성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신부전 같은 신장 병변을 유발해 평생의 장애를 남기기도 한다¹⁾.

과민성 혈관염은 약물이나 감염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일종의 피부 혈관염이다. 과민성 혈관염의 주요 증상은 피하 출혈 위주의 피부 병변이며, 경

우에 따라 흥반, 구진, 포진, 수포, 결절, 궤양이나 이상 감각 또한 동반될 수 있다. 알레르기성 자반병과는 달리 소화기나 신장 같은 내부 장기 손상을 거의 동반하지 않아 질환의 예후는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나, 증상이 종종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기에 주의를 요한다¹²⁾.

한의학에서는 葡萄疫, 血風瘡 등이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알레르기성 자반병, 과민성 혈관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²⁾. 김 등은¹³⁾ 알레르기성 자반병 환자 2명에게 四物湯 合 六味地黃湯 加味를 투여한 후 유의한 증상 호전을 확인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문 등¹²⁾ 또한 六味地黃湯加味方 투여를 통해 과민성 혈관염 환자의 자반 증상을 상당수 호전시켰다고 밝혔다.

猪苓, 茯苓, 阿膠, 澤瀉, 滑石으로 구성된 猪苓湯은 사구체 신염, 요로감염과 같은 체액 대사 문제를 겸한 염증성 질환 치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진 처방이다. 傷寒論 조문인 ‘若脈浮發熱 渴欲飲水 小便不利者 猪苓湯主之’ 또한 체액 대사 문제를 동반한 염증성 질환 치료에 猪苓湯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5,6,7)}. 그러나 猪苓湯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비뇨기 질환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처방의 다른 쓰임새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점상 출혈을 동반한 과민성 혈관염 의증 환자 1례에게 猪苓湯을 투여한 후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증례 환자는 보통 체형의 여성으로, 2020년 5월 18일경 발생한 양측 상하지 자반과 방광염 증상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초진 당시 양측 주술 관절 이하에서 홍자색 반점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반점의 크기는 약 1~2 mm 정도였다. 환자 양쪽 귀가 뜨겁고 가려우면서 단단한 느낌이 있다고 하였으며, 피부 증상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방광염으로 인해 배뇨통, 잔뇨감 증상이 느껴진다고 호소하였다.

압력을 가해도 색이 변하지 않는 출혈 형태의 반

점이 관찰되었다는 점, 복통, 출혈, 관절통 등 다른 증상 호소가 없었다는 점, 피부 병변이 발생했던 시기에 염증성 질환인 방광염에 이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증상을 과민성 혈관염으로 진단하였다^{1,12)}. 또한 환자가 배뇨통, 잔뇨감과 같은 비뇨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해당 증상과 자반의 발생이 시기적 연관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환자를 下焦 水熱結滯 상태로 판단, 猪苓湯을 투여하였다⁵⁾.

猪苓湯 투여 후 약 한달이 지나자 피부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종아리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피부가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초진 당시 호소하던 방광염으로 인한 배뇨 불편감 역시 내원 당시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NRS 7점 → 2점). 약 5개월 후 본원에 다시 내원한 환자에게 그간의 경과에 대해 묻자, 상하지와 귀 부위 증상은 호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광염 증상 또한 그동안 재발하지 않고 유지되었음을 확인해주었다.

본 연구는 猪苓湯이 염증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에⁵⁾ 착안해 피부 질환에 대한 猪苓湯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증례를 통해 猪苓湯이 피부 증상 완화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추후 비뇨기계 문제를 동반한 다른 피부 질환의 치료에도 猪苓湯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한 적절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관련 증례의 수가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본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猪苓湯에 대한 추가적 임상례 축적과 이를 통한 처방의 적용 영역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요약

점상 출혈을 동반한 과민성 혈관염 의증 환자에게 猪苓湯 30일분을 투여하자 상하지의 피부 증상이 8점에서 2점으로 개선되었으며, 방광염 증상인 배뇨

통, 잔뇨감 또한 NRS 7점에서 2점으로 호전되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1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참고문헌

1. Kwon, K.Y. (2008). Diagnosis and treatment of purpura.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75(2), 169-72.
2. Traditional Korean Dermatology & Surgery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2007). *Text of traditional Korean dermatology & surgery*. 1st ed. Busan: Sunwoo. 463-6.
3. Kim, J.S., Choi, J.H., Kim, J.H., Jeong, M.Y., Park, S.Y. (2016). A case of allergic purpura treated with Korean medicine-two cases. *Herb Formula Sci*, 24(1), 63-70.
4. Kang, D.W., Park, J.G., Han, C.Y., Kim, K.S., Kim, Y.B. (2019). Review of Korean medicine treatments for purpura and vasculitis in Korean journal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32(3), 116-35.
5. Mang, W.J. (1996). *Sanghanron commentary*. 1st ed. Iksan: Wonkwang University Press Office. 297-9.
6. Kim, B.M., Jo, H.G. (2020). Adjuvant therapy efficacy of herbal medicine Zeo Lyung Tang (Zhu Ling Decoction) for primary glomerulonephritis: Systemic review and meta-analysis. *J Int Korean Med*, 41(4), 633-57.
7. Lee, C.R., Kim, T.H., Rhee, J.W., Na, B.J., Kim, E.J., Lee, S.H., et al. (2003). Case studies on the patients with urinary tract infection after stroke treated with Oryeong-san Gamibang(Wuring-san Jiaweifang). *J Int Korean Med*, 168-75.
8. Zufferey, A., Kapur, R., Semple, J.W. (2017). Pathogenesis and therapeutic mechanisms in immune thrombocytopenia (ITP). *J Clin Med*, 6(2), 16.
9. Choi, K.C. (2001).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Journal of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44(2), 115-8.
10. Kwon, J.M., Pak, K.Y. (2018). Poor prognosis in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associated retinopathy. *J Korean Ophthalmol Soc*, 59(4), 384-7.
11. Tizard, E.J. (1999). Henoch-Schönlein purpura. *Arch Dis Child Educ Pract Ed*, 80, 380-3.
12. Moon, Y.J., Kim, C.H., Chu, H.M., Lee, J.Y., Song, B.K., Won, J.H. (2018). A case report of hypersensitivity vasculitis improved by Korean medicine treatment. *J Int Korean Med*, 39(5), 964-72.
13. Kim, B.N.R., Park, J.M., Chae, J.W. (2014). A case report of allergic purpura. *J Pediatr Korean Med*, 28(4), 108-17.

ORCID

- 이주현 <https://orcid.org/0000-0003-3482-7164>
 조은희 <https://orcid.org/0000-0002-9078-7091>
 박지원 <https://orcid.org/0000-0002-7134-6143>
 박민철 <https://orcid.org/0000-0003-0448-4148>